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음 8월 29일) 제 19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공공기관 우선구매 악용 특정업체 실적 부풀리기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지적

법률 미비점 이용해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고용노동부에 중복등록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 우선 구매한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실적을 중소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등록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고, 매년 우선구매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사회적기업 제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해당 금액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과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에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계약으로 두 건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한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6년 공공구매 우선구매 우수사례로 발표한 서울메트로는 2016년 사회적기업 구매액 실적을 총 17억 200만원으로 보고했다.

이 중 14억원 가량은 사회적기업인 A사로부터 구입했다. 그런데 위 A사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A에서 구매한 실적은 그대로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으로 중소기업부에 등록됐다. 만약 A사의 실적을 장애인기업 구매실적만으로 등록했다면 서울메트로의 사회적기업 구매액 실적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도 품수 실적등록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의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 총 13억원 중 4억 411만원(31%)을 장애인기업 실적과 중복 등록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모두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중복등록하고 있다.

그러나보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동시에 받은 회사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로는 두 인증을 모두 받은 회사가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 B사의 경우, 2017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에 모두 납품 중이다. 물론 각 산하기관은 위 B사의 실적을 중복등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업들이 기회와 희망을 얻어야 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서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야말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품수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법률적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내년 장애인체전에서 다시 뽀시디” 17일 전주 오펀리스 컨벤션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선수단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선수단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11위로 역대 최고성적을 거뒀다.

도교육청, 내년 학교 무상급식에 63억원 추가 투입

무상급식단가 200원 인상안 전북도와 합의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무상급식단가 200원 인상안을 전북도와 합의했다.

이에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63억원(전북도교육청 34억원·시군 18억원·전북도 1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전북도 무상급식 총 예산은 1133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22년까지 2년마다 200원을 인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했다.

현재 유·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100%, 초·중·농어촌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도시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는 기자

차세대 태양전지 나노 적용 제조기술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전북대 한운봉 교수 “기존것보다 안정성·수명 길어”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에 게재

전북대학교 한운봉 교수(공대 화학공학부·사진)와 원유생 박사과정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 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를 나노복합소재와 계면공학 기술을 적용해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 학계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을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과 달리 공기에 노출됐을 때 안정성이 매우 좋고

소자 성능이 좋아 수명 역시 기존 태양전지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교수팀의 이 기술은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Nano Energy’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높은 광 흡수율, 큰 전하 확산계수, 우수한 전하이동 능력 등으로 인해 발전효율이 높으며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를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전자 수송층의 광촉매 현상과 수분에 의한 페로브스카이

트 물질의 분해로 인해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한 교수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화니켈(NiO) 나노입자와 페로브스카이트를 하이브리드한 나노복합소재를 처음으로 개발해 그 결과를 지난해 ‘Nano Energy’에 게재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실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좋은 태양전지를 상용화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간 연구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BK21플로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정해는 기자

문 대통령 “평화 지키기 위한 힘 필요... 독자적 방산역량 확보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공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

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 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부가기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약속과 함께 육·해·공군과 방산업체 관련 대표자들에게 3가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주문한 3가지는 방산비리 근절, 방위산업 생태계 혁신,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민·군 융합 촉진 등을 약속하며 투명한 경영을 위한 방산 기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뉴시스

2017 진안홍삼 축제

건강충전! 활력충전!
Jinan Red Ginseng Festival

10.19~22 일

마이산 북부 일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jinafestival.com

금 18:00 진안홍삼 붉금 EDM 파티

토 17:00 트로트 페스티벌

별빛 걷기 (풍등띄우기)

연기가래떡볶기

태조 이성계 몽금척 퍼레이드

매일 쏟아지는 행운을 꼭 잡으세요~!

11:00 연기 홍삼가래떡볶기

13:00 진안홍삼 대박! 터트리기

14:00 홍삼각테일 쇼(매일 100명 선착순 체험)

15:00 홍삼대방출(최대 50% 한정 할인판매)

매일 밤 이런 거 처음이지? 홍삼주 분수대, 홍삼 연못, 홍삼 뉴시등

매일밤 잠들지 못하는 축제

19:00 17:30 개막식 및 개막공연 (에어리얼 쇼)

20:00 18:00 진안홍삼 붉금 EDM파티 (DJ 구준엽)

21:00 17:00 트로트 페스티벌 (태자, 설운도, 김연자, 장윤정, 오승근, 조항조, 진성등)

22:00 13:00 향우회원과 함께하는 진안홍삼열린음악회 (최성수, 전영록, 남진, 임수정, 김용림 등)

17:00 폐막식 (2018개 LED 풍선 띄우기)

매일 밤 20:00 별빛걷기 (풍등띄우기) 20:30 내 청춘을 돌려도!! (청춘 나이트)